

# 북한 개발 소식

# 03

2019 March

통권 161호

| 이달의 주제 |

변화하는 북한사회와 선교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 북한 개발 소식

2019 March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변화하는 북한사회와 선교



01

권두칼럼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선교

12

칼럼 1 · 강동완  
변화하는  
북한 사람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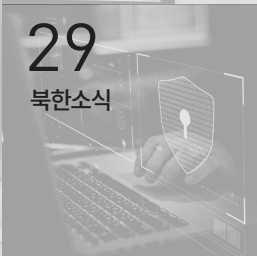
18

칼럼 2 · 정은찬  
북한주민,  
변화의 중심에 서다



25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13)



29

북한소식

34

서평  
북녘교회 이야기

36

기도제목



#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인간사회를 비롯하여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특히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와서는 짧은 기간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시대의 격류를 따라가기 벅찬 요즘이다.

시간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흘러간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화해 무드 속에 언론을 통해 북한, 특히 평양의 풍경을 종종 접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고층 빌딩이 자리한 평양의 거리나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하는 평양 시민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굶어죽는 사람이 많고 경제가 어려운 북한만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었던 것이다. 비록 평양과 그 외 지방의 격차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고 체제 선전을 위해 가장 뛰어난 부분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생각속에 있었던 과거의 북한, 짧게는 십수년 전에서부터 멀리는 수십년 전 모습의 북한은 이미 없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북한은 이미 400만명의 주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은 아니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인트라넷



<북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게임과 앱들 (자유아시아방송)>

‘광명’을 이용해 홈쇼핑에서부터 자체 내비게이션 앱까지 사용한다고 한다.<sup>1</sup>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 변화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나 사회 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하계도 보통의 사람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근래에 큰 사회적 변화와 역사의 굴곡을 겪은 북한이니 만큼 그 안의 사람들 역시 전과는 다른 의식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 사회구조의 약화 및 수정을 겪었다.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환경의 변화를 크게 겪었다.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생각과 관점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변화는 앞으로의 교류 협력과 장기적인 통일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도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와 북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과제와 기도제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금기와 권위의 붕괴

북한 사회의 변화는 경제, 특히 서민 경제 부분의 대대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실패와 대기근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혼란은 북한 사회의 근간을 바꿔놓았다. 여러가지 굴곡한 사회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기존 권위와 금기가 붕괴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고난의 행군 이전 북한 사회는 수령과 당이 단순한 권력을 넘어서 사상적, 윤리적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물론 위로부터의 강력한 세뇌와 압력 탓이기도 했지만 주민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지금도 탈북민들 중에 김일성 시대를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당시에는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소위 신심이 깊다고 표현할 정도의 충성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회상한다. 수령과 당이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지낼 곳을 제공하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기근은 자신의 지도자와 당에 대한 믿음을 깨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내 생계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와 규정을 어기고 회피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이 경각에 달하자 금기를 깨기 시작했다. 먼저는 강을 건넜고, 다음은 장마당을 통한 장사였다. 온갖 편법이 생존을 위해 이용되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 기업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1 중앙일보 “북한의 IT현황...400만명이 스마트폰 쓰고, 내비 앱·온라인쇼핑 이용”, 2018. 05. 06.



국가 기업소의 이름표를 걸어놓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났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서비차를 비롯한 각종 운송 및 교통 수단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국경지대에서는 야밤에 엄청난 량의 물자가 중국에서부터 뗏목을 타고 밀반입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된 관리들에게는 뇌물은 필수였다. 이전의 북한이었다면 이런 사태를 두고볼 수 없었겠지만 대기근으로 경제 기반이 붕괴하고 간부들의 생계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제는 불가능했다. 설사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생활을 책임질 다른 대안도 없었다.

경제적인 변화 외에도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시작된 대량의 외부 정보 유입도 주목할 점이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발전된 외부 세계, 특히 자신들이 배웠던 것과는 다른 발전된 남한에 대한 소식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한때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수령님과 국가에 대한 믿음은 깨어졌다. 기존에 국가를 지탱했던 절대적인 권위는 이제 무력으로의 통제만이 남았고, 국가가 아닌 나 스스로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북한 사회의 변화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 새로운 사회 구조의 정착과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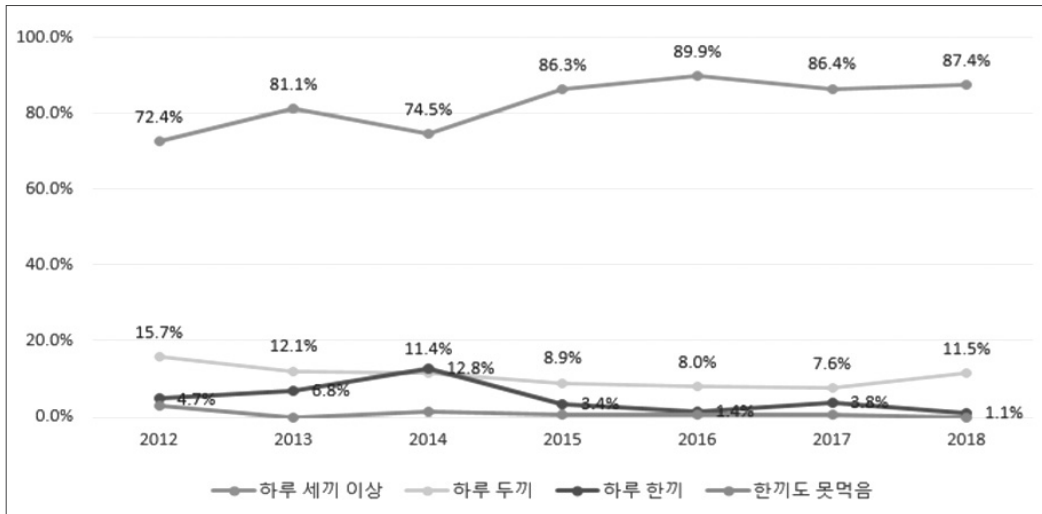
북한 당국은 결국 현실을 인정하기에 이르

렀다.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해 장마당을 인정하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를 필두로 기존의 국가경제 시스템에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며 이미 보편화 된 경제 변화 상황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통치 시기에는 중간 중간 다시 이전과 같은 국가 통제 체제 강화로 회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에서 보이듯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장세를 거두는 등 시장과의 대립 대신 국가 체제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평양 중심가의 일반 소매시장인 중구시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 북한은 최악의 빈곤에서 벗어났고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17-18년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식생활 조사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87.4% 였고, 매일 고기를 먹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한다는 응답자가 50% 가까이



<북한 주민의 하루 식사 횟수. 2015년 이후 하루 세끼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서울대 2018 북한 사회변동 조사 자료)>

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영양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도 계절마다 한두벌씩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52%로 나타났다. 물론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외 문화생활이나 저축에 쓰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대적인 빈곤 상태는 타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여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는 하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중층의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다.

전에 비해 더욱 엄격해진 국경 통제에도 외부로부터의 정보 및 매체 유입 역시 계속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서 16년

사이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내 한국문화 유입과 이로 인한 의식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접해보았다는 응답자는 86%에 육박했다. 그 중 한두 번 접해보았다는 응답자는 39.6%, 자주 접해보았다는 응답자도 46.9%에 달했다.<sup>3</sup> 최근으로 오면 이 수치는 95%대로 더 뛰어 오른다.<sup>4</sup> 이미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수 있겠지만, 북한 내에 외부 문화 특히 금기시되는 한국 문화가 이미 상당 수준 퍼져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도 벌써 20여년 전의 일이

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2018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자료집. 21-57.

3 정동준 (2016).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통일과 평화, 8(2), 129.

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102-103.

되었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최근 북한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의 안정은 이전 김일성 시대의 안정과는 전혀 다르다. 앞서 언급한 경제 구조 변화와 정보의 유통은 기존의 정치 체제 입장에서는 취약점일 수 밖에 없다. 이제 북한 사람들은 수령과 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외부 세계의 소식도 생소하지 않다. 비록 이전에 세워져 있던 수령-당-주민의 정치적 구조는 여전하지만, 그 구성원들, 주민들뿐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 할 간부와 고위 엘리트까지도 이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같은 모습의 북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 새로운 가치관의 북한 사회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도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야기한다.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눈을 떴고 경제적으로도 초보적이지만 시장 경제가 주도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를 통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을 통해 시민 사회의 태동 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사종교적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이다.

그렇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분좋은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 사람들의 현재 생각은 어떠한가? 비록 북한에 들어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지만 최근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어렵게나마 내부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김정은 집권 초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체제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과반수가 넘었고 개혁 개방을 바라는 의견도 70% 가까이 나왔다.<sup>5</sup> 그렇지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편이지만 시간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관심없다는 의견도 30%나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젊은 세대에 비해 과도기 세대나 중간층에서는 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5 최대석, 장인숙. (2014). 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탈북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0(1), 21-22.

했다. 특히 시장으로 먹고 살기는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전과 같이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장사를 그만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정은 정권의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게 보았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간부들이나 상층에 속한 사람일수록 현 체제 유지되는 것이 자신의 지위나 생활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sup>6</sup>

좀 더 최근 자료를 살펴보자. 17-18년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대 북한주민 통일의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에 70~80%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남한에 대해서도 협력대상(58.6%)으로 보는 응답이 적대대상(28.7%)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김정은 직무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48.3%로 못하고 있다(51.7%)보다 낮았지만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북한 내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에 대해서도 50% 미만이라는 의견(26.4%)보다도 50%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지도가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4.1%으로 전체 중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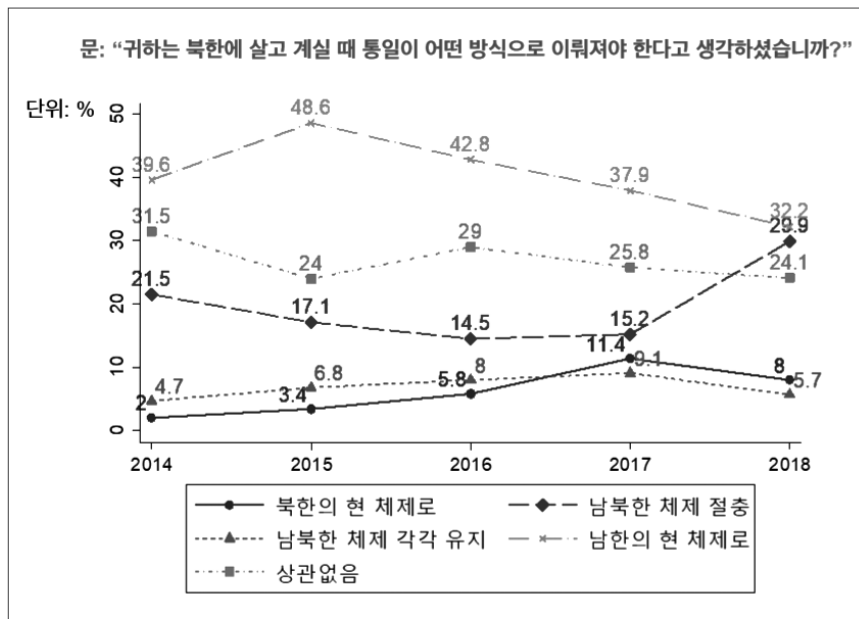
주목할만한 점은 근래에 들어 체제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앞서 언급한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응답에서 남한 체제로의 통일은 14년에 39.9%에서 18년 32.2%로 감소하였다. 반면 남북한 두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는 의견은 14년 21.6%에서 29.9%로 증가했다. 북한 현 체제로 통일이라는 답변도 14년에는 2%에 불과했으나 18년에는 8%로 증가했다.<sup>7</sup> 남한의 체제가 북한보다 낫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지지율 상승은 국가 경제 개선 및 최근 외교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작용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현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그 관심이 경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현 체제와 김정은에 대한 반감은 적지

6 Ibid. 5-36.

7 정은미 외 (2015).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37-38.,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81-82.





<각 해마다 당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응답 변화. 남한 현 체제로 통일 응답이 우세하지만 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반면, 북한의 현 체제 및 남북한 체제 절충 응답은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2018 북한 사회변동 조사 자료)>

않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김정은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김정은이 집권한 후 경제 사정이 개선되고 정치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데 대한 긍정적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있음을 보여 준다. 재미있는 점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적개심이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치이지만 점차 감소 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행정기관 및 당 기관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멀리 있는 김정은도 싫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간부들을 더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의 의미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체제에 대해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 보다는 경제적 성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민들 사이에 경제적인 번영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자유의 확대 등 인간다운 삶의 영역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는 미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세인 듯 하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무엇

일까?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인 만큼 현 정권도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경험을 한 북한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적절한 경제력 확보는 뼈에 사무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정권 입장에서는 이미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무너진, 외부 소식도 잘 알고, 국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주민들을 단순히 통제와 단속, 세뇌와 충성강요 등 강압적인 방안으로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제는 정권이 통치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존의 주입된 사상이나 잘 갖추어진 통제 시스템에 더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만족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이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고 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 도모 및 미국과의 북핵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고자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국내적으로도 안정적인 체제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그간 핵개발을 통해 국가적 위신을 세우고 이를 선전하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면에는 분명 손해를 보았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 여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핵을 유지하고자 했다면 잠깐은 선전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핵보유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제 1차 북미정상회담 전 싱가포르 투어를 가진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과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외무장관(왼쪽).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싱가포르)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흘렀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핵을 매개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앞날에 대한 기대를 가질만한 외교적 성과를 내었고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반향이 있었음을 앞서 언급한 조사의 김정은 지지율 상승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경제 제재를 적절히 견어내고, 오히려 추가적인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등 혜택을 획득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 부양의 성과를 거둔다면 국내에서 김정은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수도 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김정은에게 국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계속 변화하는 북한과 선교적 청사진

그간 우리는 북한 체제의 대대적인 변화 또는 정권의 붕괴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는 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어쨌든 기존의 통제 시스템과 함께 경제성과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고 안정화 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전과 같은 억압과 통제, 특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중단되도록,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주로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자유나 평등, 정의 등의 가치와 인권 부분에 대한 요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하는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생존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이것이 사회적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정은 정권도 전과는 다른 통치 환경에서 주민들의 높아지는 요청을 일방적으로 억누르고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의 위신을 해치면서까지 당장에 그간 저지른 여러 악행과 인권유린들을 뉘우치고 종교적인 체제를 바꾸거나 포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등의 사례와 같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독재적인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자유의 폭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쉽지 않겠지만 종교 부분에도 자유가 확대될 수 있다. 타 국가 사례와 같이 어용교회에 불과했던 국가교회가 좀 더 복음에 충실한, 실질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그간 심각한 박해로 인해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와 교회들이 양지에서 활동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국가화 할 수 있도록, 자유와 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국들을 설득해서 관련된 외교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압박 또는 유도의 노력도 필요하다.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이 움직일지 주시하는 가운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응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변화 방향과 대응 뿐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 사람에 대한 선교적 접근법도 고민해야 한다. 먼저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에 복음의 문이 조금씩이나마 열리는 상황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저 통일이 된 후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통일이 아직 멀었으니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이전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갑자기 북한 북부의 국경이 붕괴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이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복음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실 수 있다.

전에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 길을 찾아 강을 건넌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포 교회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기존의 수령님과 체제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고 그 동안 삶의 기반이었던 세계관의 붕괴로 큰 공허함을 느꼈을 영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물질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려움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선교현장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한 동포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한다(딤후 4:2).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현장의 복음사역을 지원하고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통일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즉시로 맡겨진 기회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특히 점점 더 강해지는 물신주의를 어떻게 깨뜨리며 나아갈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 전반에 물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드리는데 장애물로 유일사상과 주체사상 뿐 아니라 물신주의가



대두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연약함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남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의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 복음화를 생각할 때 이전 동독의 사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에는 공산화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느정도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중추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독일 통일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동독 교회는 통일 이후 오히려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쇠락하고 말았다. 동독 사회에 완전했던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적 가치관에 서구의 자유시장경제가 섞이면서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더욱 팽배해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물질을 좇아 흩어진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경제 부분의 시작으로 진행된 북한의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의식 변화를 통해 북한 사람들을 기존의 우상숭배와 각종 억압을 거부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 마음 문이 열리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을 비롯한 북한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부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물론적 사고로 살아왔고, 기독교를 민족 반역과 미제 앞잡이 종교로 교육받았던 사람들, 생존의 위협 속에 돈의 위력을 뼈저리게 느낀 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아오기 보다는 동독과 같이 물질주의의 덫에 빠지기 쉬울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일종의 ‘유일신’을 믿었던 경험이 있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잘 살게 해주겠다는 변영의 신이었다. 우리는 기독교를 본딴 구조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이 거짓신과는 다른, 주체사상과 유일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을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가 복음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북한의 영혼들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변화하는 북한 사람과 사회

강 동 완(동아대 교수)

우리 사회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도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전혀 다르다. 북한정권과 체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북한’은 무엇을 의미할까? 북한에서는 ‘평양시민 vs. 북한인민’이라 표현할 만큼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뚜렷하다. 최근 북한 변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된 여명거리, 대형쇼핑몰, 도시 야경, 핸드폰 사용자의 급증 등은 북한 전체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평양 일부에 한정된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하면 떠올리던 ‘꽃제비’가 북한 전체의 상징도 아니다. 어느 한쪽만 부각해서 이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봐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북한이라는 실체를 두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강조한다. 분단의 폐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북한 변화’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같다. 북한이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달라진 것이 없는가의 여부는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확연하다. 현상만 보면 북한은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북한정권의 근본적 특성을 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북한 변화를 이야기 할 때 변화의 지표가 무엇인지, 변화를 이끈 주체가 누구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평양특권층과 여전히 한끼를 걱정하는 지방의 인민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먹는문제를 해결하고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현존한다. 외부정보가 제한된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평양 시내 고층 빌딩의 야경 (좌) 와 꽃제비 (우)의 모습. 평양의 화려함이나 꽃제비의 모습 모두 북한을 대표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영상물은 남한을 이해하는 기회와 창을 제공한다. 북한주민들은 평소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은 왜곡된 남한의 모습이 아니라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의 발전상과 남한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주민들에의 ‘마음연기’라는 관점에서도 북한에서의 한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왜곡된 남한의 모습이 아니라 한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는 남한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한류를 통해 남한 생활을 이해할 뿐 아니라 ‘남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이 아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사람’으로써 남한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북한에서의 한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의 유입을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로 간주하고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는 외래문화를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 남한 영상물 시청과 관련한 영상매체는 북한 장마당에서 인기리에 거래되는 품목이다. 배급제 중단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장마당이 북한 내부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 인권, 복지 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가치를 북한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전파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양식이 구조화 되어 가는 북한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무조건 통제만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중접경지역에서 북한 내륙지역으로 이어

지는 밀수의 연계망은 국경경비대 및 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당을 위해 충성해야 할 간부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역사적 전례가 지금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 역시 변화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민의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하라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메시지는 북한 당국 역시 새로운 창작물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외래문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새세대들의 변화 양상은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주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받지 못하고 외래문화를 경험한 새세대들의 성장은 기존의 북한식 통치체제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당국은 한류를 엄격히 통제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은밀하게 한류를 지속적으로 접함으로써 이는 제한적, 간접적이거나 남한 문화로의 접근 통로를 제공한다. 외래문화의 접촉을 통해 이완된 사상의식과 자본주의 행위양식을 체득하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이를 단속하고 통제하여 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 당국 사이의 충돌이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이완시킬 수 있지만 한류가 직접 북한 사회변화, 나아가 혁명적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다만 엄격한 북한통제 시스템에 일정부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균열요인이 북한 체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체제내구력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균열의 틈새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북한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상재생기들 (데일리 NK)>

분단 70년의 분단 세월은 남북한 사람들간 문화, 정서, 인식의 단절을 초래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쩌면 이제 우리의 선부른 기대일지도 모른다. 남북한이 한 동포라 말하지만 언어, 음식, 외형, 취향 등의 문화적 이질감은 분단의 시간이 만들어 낸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거대담론으로써 통일의 제도와 경제적 편익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은 개인의 일상의 모습보다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통일편익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통일이 되어 남북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통일이 가져다줄 혜택임은 분명하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횡단철도로 대륙까지 연결되는 원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분명 가슴 벅찬 일이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통일편익을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방식은 오히려 통일 논의의 피로감을 더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 한국이 되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을 결합하여 수십조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수치가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논의는 민족의 지상과제라는 당위론적 설명과 경제적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존의 정치, 경제적 차원의 통일이익이나

제도만의 통일이 아닌 “사람 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와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통일의지와 실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준비는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상의 재인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시공간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서 사람들 회복을 통한 가슴 따스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북한사람에 대한 일상과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공통의 인식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이후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정 통일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 스스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마음에 형성된 적대감과 왜곡된 이미지를 넘어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통일’은 결국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치사상적 대립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문화적, 정서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의 한류는 간접적이거나 남북한 사람들의 만남과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중문화의 공유를 통해 남북한 문화접점이 이루어지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통일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써 통일을 인식하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 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실천담론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치와 사상의 대립을 넘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동질감의 회복이 바로 문화로 여는 통일인 것이다.



<국제사회에 외교적 유화책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3대에 걸쳐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과 폭력을 일상적으로 자행해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북한사회는 지금 분명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주체와 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김정은의 과감한 개혁개방 조치가 아니라 바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갈망에서부터 비롯된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김정은이 마치 “평화의 전령사”라도 된 듯하다. 환한 미소를 짓는 김정은 캐릭터가 등장하고, 교육용 교재는 그를 최고의 지도자로 미화한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 너무

‘평양시민’과 ‘북한 인민’이라는 말로 구분되듯 평양 밖에는 또 다른 북한이 있다. 말 그대로 김정은이 독재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인권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사람들은 아파하는데 한쪽에서는 홀로 높은 자리에 앉아 만세를 부르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를 평화의 사도로 칭송한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 했는데 정작 사람은 없다. 핵을 가진 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



하는 김정은 정권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치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권력에 눈멀어 분단을 악용하는 ‘김정은 바라기’가 되는 건 아닌지 ‘당신들의 평양, 그들만의 평화’는 아닌지 되묻고 싶다. 가짜 평화는 아름다운 고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혹하다. 김정은의 독재가 변하지 않는 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없다. 그 열쇠는 김정은이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상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

# 북한주민, 변화의 중심에 서다

정은찬(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 I. 글을 시작하며

집권 초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체제생존전략으로 제시했던 김정은 정권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제 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집중’ 전략노선으로의 변화를 선포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동조할 의지를 드러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집권 6년차까지 지도자의 대외활동이 전무했던 북한은 집권 7년차였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과 북중정상회담(3.25, 5.7, 6.19), 북미정상회담(6.12)에 임하였고, 2019년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2.27. 베트남으로 예정)을 앞두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래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북한사회 내 주민변화를 북한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으로 국가공급 중단사태가 극대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24년, 그리고 시장 운영이 공식화되었던 2003년 이후 15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북한주민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 II. 북한 주민변화의 시대적 기점

북한 내 주민변화의 시대적 기점은 우선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를 북한주민 변화의 시대적 기점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주민 생존방식 변화가 본격화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주민 변화의 시대적 기점 구분기준을 대부분의 북한주민 변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그 변화는 과거에도 현재도 진행형임을 서두에 밝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특성상 국가공급제도 하에서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을 공급기준에 준하여 공급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정량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안고 있는 부족경제의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북한주민들은 부정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여 좀 더 잘살기 위한 사회적 일탈을 강행하게 된다. 그 비중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들은 북한당국이 통제하는 개인 장사를 비공식적으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 사사여행자 혹은 장사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상인들을 만나 외부소식을 듣기도 하였다. 부분적이고 국경 지역에 제한된 주민 변화

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북한주민 변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체제의 존속과 함께 지속되어 왔음을 입증해준다.

본고에서 다루는 북한 주민 변화는 개인이기주의자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경제난 이전 시기의 주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않고, 경제난 이후 생존을 위해 변화의 기류에 합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던 환경 변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자립적 생존현장에 뛰어들었던 그 시점을 변화의 기점으로 보았다.

북한주민 변화의 또 하나의 시대적 기점은 2009년 화폐개혁이다. 이 시기(2009.11.30-12.5)를 또 하나의 변화의 기점으로 보는 것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자립적 생존방식 구축에 의한 북한주민 생활수준 상



〈2009년 화폐 개혁 당시 새로 발행된 9종류의 지폐 중 일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

격차가 표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는 주민의 자립적 생존방식이 고착되고 시장을 통해 개인 수준에 부(富)가 집중되는 사회적 현상이 확대되자 화폐개혁을 실시하여 국가로의 자금 집중 및 시장 위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가구당 10만원(북한원화) 한도 내에서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 대 1의 비율로 교환해준 화폐개혁은 중소상인의 삶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고 부의 격차, 생활수준 상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게 하였다. 북한의 거상들은 북한원화(국돈)보다 달러나 유로를 선호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큰 손실을 보지 않았고 소규모 자본으로 생계형 장사를 하던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화폐개혁 당시 북한 중소상인이 보유한 평균 화폐 규모는 30만원으로 알려져 10만원 교환을 제외한 20만원은 불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폐개혁 실패에 따라 북한당국이 시장 확산을 묵인하면서 시장에서의 부의 축적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권력층과의 유착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더욱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이 시기에 북한주민 변화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그으며 부의 격차에 따른 새로운 단계로의 진화, 자립적 생존방식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한 주민들에 의한 명품패션과 외부문물 선호 및 외부세계 동경 등의 문화행태 변화로 승화되기 시작하였다.

### III. 북한 내 주민변화 추동요인

북한사회 내 주민변화는 다음 세 가지 주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가계경제 유지방식의 변화, 둘째, 외부정보 접촉환경의 변화, 셋째, 사회통제기제의 형식적 작동현상이다.

첫 번째 요인인 가계경제 유지방식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 생산부문 80%이상이 침체되고 국가공급이 중단되었던 시기에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했던 북한주민의 생존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2000년대 들어 삶의 주요방식으로 고착되어 단순 장사, 소토지(화전), 개인수공업, 밀수의 경제생활 유지방식을 넘어 돈주가 주도하는 고리대금업, 유통업, 교통운수업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북한주민의 80% 이상은 사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가계소득 중 사경제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 비중은 60%를 상회한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의 이러한 생계유지 방식은 더욱 고착되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인 시장을 통한 외부정보의 접촉은 시장 확산과 더불어 북한주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국가규제 하에 운영되었던 농민시장이 경제난으로 자생적 암시장화(Black Market)되면서 자본주의 맹아가 싹트는 현상이 되었고, 2003년 북한정부의 시장포용정책에 의해 제도적으로 허용된 공설시장으로 거듭난



〈양강도의 한 시장 모습. (조천현 사진가 촬영)〉

주민생존 장터(marketplace)가 되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시장은 사람·자본·재화·외부정보와 외부문화를 연결시키는 변화의 매개체(instrument)이며 시장에서의 외부문물 및 외부정보 접촉은 비공적 영역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남한드라마CD(알판), 한국산 제품, 한국가요·미국팝송 등을 선호하는 수요가 이러한 환경변화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

북한 내 주민변화를 추동하는 세 번째 요인인 사회통제기제의 형식적 작동현상은 사회통제를 시행하는 중견관료 간부계층의 생존과 직결된다. 가계경제유지 방식의 변화는 간부계층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권력 상층부를 제외하고 지역사회 중견간부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 3,000원(북한원, 1USD환율 8,200원선)보다 높은 4,000원 이상을 받지만 시장에서 쌀을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국가배급제의 혜택으로 쌀 1kg당 45원씩 국정가격으로 공급받는 주민 비중이 1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중견간부(도·시·군 당 간부, 인민보안원, 안전보위원)들은 시장에서 1kg당 5,000원에 해당하는 쌀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통제 시행자인 간부들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보장

을 위해 통제대상인 일반 주민들과 결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거상들과의 공생공존, 뇌물수수과 부정부패 등은 북한의 사회통제가 형식적으로 작동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 사회적 이탈(직장 생산현장에서 이탈), 외부세계 동경의식 확산에 대한 통제가 이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 IV. 북한 주민변화 양상과 향후 전망

현재 북한주민 변화는 경제적 자립생존의 단계를 거쳐 명품패션과 외부문물 선호를 통한 문화의식 변화, 개인·가족·돈 중심의 가치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자립생존은 경제위기 이후 시장 확산과 더불어 20여년 간 북한주민의 경제 의식을 변화시켜왔다. 경제난 초기 배낭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던 북한주민은 현재 자립생존과정에서 돈주, 거상, 자영업자 등으로 거듭나고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수준상 격차가 상존하는 북한의 현실이지만 경제적 자립 생존은 북한주민의 경제의식을 체제의존에서 자기중심적 자립의식으로 변화시켰고 이는 경제생활과정에서 더욱 체화되고 있다. 특히 핸드폰(손전화기)사용을 허가한 북한당국의 조치에 의해 개인 상인들의 상(商)행위는 더욱 기능화·구조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 북한주민 수는 20% 수준으로 500만 명에 달하며 휴대전화 유형은 막대기형(F107, T95), 폴더형(접이식 E850), 슬라이드형, 터치식(스마트폰) 등이다. 대당 가격은 200 - 800달러로 유형별에 따라 격차가 있으며, 2013년 출시된 ‘아리랑’ 폰은 300달러, 2014년 출시된 ‘평양터치’는 250 - 500달러, 2017년 출시된 ‘진달래’는 700달러 정도이고, 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으로 평양시 주민의 경우 인터넷쇼핑도 할 수 있고, 가족 친지는 물론 동업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상거래 청산결제 등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북한주민의 자립적 생존은 향후에도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선전하는 휴대폰 (손전화기) 진달래3 이미지.〉

북한주민의 자립적 생존은 먹는 문제의 해결과 함께 문화행태 변화 및 문화의식 변화를 견인한다. 먹는 문제가 자립으로 해결된 북한주민들 속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나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패션 변화를 시도하고 외부정보 접촉을 갈망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일본산 제품에 집중되었던 북한주민 패션 선호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한국산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평양의 부유층은 한국산 화장품(스킨·로션 세트에 북한원 36만원 정도)을 사용하고 결혼 지참품으로 한국산 가전제품을 선호한다. 이외에도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해외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인기드라마는 3 - 5일 이후 북한의 시장에서 암거래로 매매되고 이러한 외부정보를 접촉한 주민들은 외부세계의 패션과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 앞에서 전술한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북한주민의 문화의식 변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태블릿 PC(판형컴퓨터)에서 접촉 금지된 외부문물을 보고 있으며 핸드폰의 경우 북한당국이 허가한 이동통신망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폰을 소지하고 외부정보를 수시로 취득하는 주민들도 있다. 북한주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망은 ‘고려링크’, ‘강성네트망’, ‘별’이 있으나, ‘고려링크’는 영화와 음악저장이 용이하고, 도청이 난이하므로 주민통제와 불리되는 특징이 있다. ‘강성망’은 영화와 음악저장이 불가능하고 도청이 가능하므로 주민통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로부터 ‘고려링크’ 이동통신망을 사용하고자는 북한주민이 대부분이다. 북한당국은 ‘강성망’사용을 권장하고 2015년 8월부터 유심칩을 ‘강성망’으로 강제 변경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비공식폰(중국, 한국 핸드폰)을 소유하고 외부정보를 청취하고 있다. 외부사조를 차단하는 북한당국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문화의식 변화 및 외부문물 선호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주민 변화는 또한 개인·가족·돈 중심의 가치관 변화를 동반한다. 외부사조에 의한 외부세계 동경의식 고취와 함께 북한의 신세대(장마당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촉진한다. 북한의 신세대인 1990년대 초중반 이후

태어난 장마당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환경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관 변화에 빠르게 합류하고 있다. 신세대의 경우 생계를 이유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치사회화 교육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높고, 시장을 통해 외부사조를 접할 수 있는 환경, 부모와 가족친지를 통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정치사회화의 정보를 유입 받고 있는 환경변화가 전제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는 현상적 변화에 국한되고 본질적 변화로 승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단순 불평불만은 누구나 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삶을 규제하는 체제의 통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 성숙된 의식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고지도자와 국가에 의존한 삶, 집단주의 원칙에 준한 삶을 중시하였던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현재 개인·가족·돈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본질적 변화로 승화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 의식변화 차단을 위한 외부사조 유입·유통 규제가 강행되고 청소년 대상 사상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북한주민 가치관 변화는 제어 받고 있다.

향후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주민 대상 사회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난 초기 변화의

기로에서 주저하던 어제날의 북한주민이 지금은 변화의 중심에 서있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기류에 합류하였다. 현상적 변화에서 본질적 변화로, 자발적으로 성숙된 의식화 미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나 현재 진행형인 북한주민 변화는 향후에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평화, 번영, 통일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 김정은 정권도 북한주민 변화를 직시하여 그들이 자유롭고 윤택한 경제생활 환경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체제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끝]



## 나의 출애굽기 (13)

●  
드보라

---

사역 도중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길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춘화라는 14살 여자아이 이야기이다. 이 아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결핵과 이로 인한 합병증 진단을 받았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다. 한국 같았으면 아무 병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병이 커졌고 중국돈 10만 위안을 써도 완치가 어려웠다. 남방 쪽으로 옮겨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아이의 엄마는 태어난지 4개월만에 복송당했다. 중국 공안이 조사가 나오고 이 엄마도 공안들의 눈을 피해다녔는데 아이가 막 태어났을 무렵에 결국 공안에게 발각이 되었다. 아기가 태어난지 보름인데 어미 없이 어찌 지내겠냐며 2-3달만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더니 공안이 혀를 차고 갔다. 그때 바로

도망을 갔으면 되었을텐데 그 엄마는 일단 공안이 갔으니 안심을 하고 애를 키우다가 4개월만에 다시 찾아온 공안에 의해 잡혀갔다.

그 당시 중국 시골에서는 우유 구하기 힘들었다. 아기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자주 아팠다. 그렇게 원 체질이 허약하다 보니 10살때부터 비실비실 했는데 결핵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어느날 갑자기 피를 토해서 입원하게 된 것이다.

중국 병원엔 돈을 보증금 조로 선불로 지급을 해야 거기서 돈을 감하면서 치료를 해줬다. 그 당시는 후원자가 부족할 때라 백방으로 소식을 알리며 치료를 위한 금액을 모았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다. 어느정도 회복을 시키고 나중에는 남한에 데리고 오자 했는데 차도가 없었다.

여기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남한으로 가능한 빨리 데리고 오기로 하고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병세가 위중해졌다. 그리고 결국 고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

춘화가 천국 갈 때 옆에서 돌보시던 함께 사역하신 분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말을 자유롭게 했다고 했다.

“한국 가고 싶은데... 언제 가요?”

“곧 갈 수 있단다.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큰아버지, 저는 한국 못갈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약한 이야기를 하니.”

“그래도 못갈 것 같아요...”

그러더니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했다.

그 아이는 아프기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다. 다행히 마지막까지 아이는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후원을 받고 주님 품으로 갔으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위로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슬픔이 남아있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나머지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리라 다짐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누군가는 14년만에 누군가는 80년



만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품으로 안길 때 평안으로 안기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14살 춘화가 그랬듯이 평안하게 가기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과 삶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탈북자로서 이 땅에서 얻은 자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로 한국까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어진 자유가 동시에 큰 유혹이 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그 은혜를 잊고 돈의 유혹을 따라, 맘몬을 좇아 살기 쉽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우리 탈북자의 상황을 출애굽기에 자주 비유한다. 출애굽이라고 할 때 북한땅을 애굽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광야 생활, 남한을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기록과 같이 가나안에서도 여호와와 군사로서 일어서야 한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종 한반도를 벗어나 열방을 다니는 기회가 있다.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이 나에게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대만, 미국, 중동 지역까지 방문하게 하신다. 부유한 미국도 인상적 이었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오랜기간 섬긴 이스라엘 땅도 밟았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드리지 못한다고 들었다. 비록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했다. 지금은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내 눈에 들어온 나라는 이집트였다. 바로 그 고대 애굽의 후예들이다. 이집트는 자원이 많고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척박함이 있었다. 이집트를 보면서 나는 북한을 떠올렸다. 물론 이집트가 북한보다는 잘

살겠지만, 북한도 석탄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가난과 척박함이 있다. 문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인간이 가로막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라미드와 �핑크스의 거대 유적을 보면서도 놀라움 보다는 태양신의 숭배가 연상되었다.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떠받드는 북한이 연상되었다. 우상숭배의 악한 죄악이 끊어져야 하겠다.



<2016년 12월 11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카이로의 한 콥틱 교회. 교인 25명이 숨지고 49여명이 다쳤다. 이집트 내에 콥틱 교회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로 추산된다. 교회를 향한 테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교회는 2천년동안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이집트와 연관된 연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감동이 있었다. 바로 콥틱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다. 콥틱 교회의 순교와 희생을 보면서 이 땅에 하루속히 박해가 멈추도록 기도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북한을 생각했다. 방문했던 카이로 모카탐의 쓰레기마을은 이집트 정교회 즉 콥틱 교회 성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비록 성도들과 교회가 쓰레기 더미에

있었지만 마음이 시원하고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천국에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식과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이들이지만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이집트와 이집트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남한에 도착했지만 나의 출애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경을 점점 넓히심을 느낀다. 부족한 자라도 사용하고자 하심을 경험한다. 능력은 보잘 것 없지만 너는 내 것이다(사43장 1-2절) 말씀해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롬 8:28)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도 전진해 나갈 것이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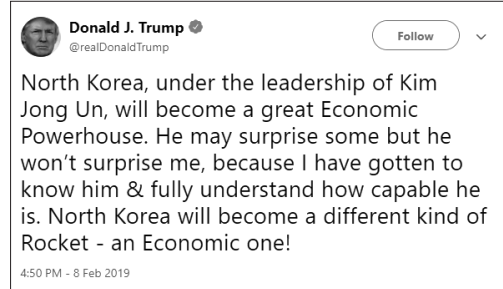
**지금까지 탈북민 수기 ‘나의 출애굽기’를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북미정상회담 2월 27-28일 하노이 개최… 트럼프 "北 경제강국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측 대표가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마치고 북한을 막 떠났다"면서 "김정은(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시간과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평화 진전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위터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great Economic Powerhouse)이 될 것"이라며 "그는 몇몇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김 위원장을 알게 됐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경제적인 로켓!"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시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았던 1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성사시킬지가 주목된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담판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베트남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현지 산업도시 박닌의 제조업 기지와 산업항구도시 하이퐁 등을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의전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찾은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2월 17일 베트남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현지 공장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도전, 도쿄올림픽에는 4개 종목 남북 단일팀 출전



<토마스 바흐(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5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남북 체육수장들과의 3자 회동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바흐 위원장, 김일국 북한 체육상.>

서울이 44년 만에 다시 하계올림픽 개최에 도전한다. 서울시는 2월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올림픽의 유치 신청 도시로 결정됐다. 대의원 투표 결과 서울시는 49표 중 과반인 34표를 획득해 경쟁 도시인 부산시를 여유 있게 제쳤다. 이로써 서울은 1988년 한국 최초의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44년 만에 두 번째 유치에 나서게 됐다. 2032년 대회는 북측의 유치 신청 도시로 사실상 결정된 평양시와 함께 공동 개최에 도전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울·평양은 브리즈번(호주), 상하이(중국) 외에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남북은 2020년 도쿄여름올림픽(7월 24일~8월 9일) 때 여자농구, 여자하키, 조정, 유도 등 4개 종목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은 2월 15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의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가진 3자 회동에서 이렇게 최종 합의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남북은 아울러 2032년 여름올림픽을 서울·평양이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의향을 바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탁구와 카누 등은 기술적인 문제로 추가 논의 후 단일팀 구성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 북한 인권정보센터 ‘2018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 “북한 종교박해 여전”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내에서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한 11번째 연례 백서를 발간했다. NKDB는 지난 2007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만 3000여 명의 북한 내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을 백서에 담았다. 또한 백서에는 NKDB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종교자유 침해 사건 자료 7만여 건과 이와 관련한 인물 4만 3000여 명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NKDB가 이날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 차원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았다. NKDB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 조사에 응한 전체 탈북자가운데 49%는 종교 활동을 한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종교 활동을 한 주민들은 노동단련형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노동단련 형은 북한에서 수위가 낮은 처벌 중 하나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종교 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NKDB의 조사에 응한 탈북자가운데 17%는 종교 박해를 받은 주민은 ‘사망한다’고 답했다. 61%의 응답자들은 ‘종교 박해를 받은 주민들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22%만이 종교 박해를 받은 주민이 ‘생존해 있다’고 답했다. NKDB는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이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KDB는 이번 백서에 2011년과 2014년 당시 일어난 종교 박해에 대한 탈북자들의 새로운 증언도 수록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종교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시달린다. 특히 강제 복송된 북한 주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권 유린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탈북자는 백서에서 “2014년 강제 복송된 주민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끌려간 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성경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수가 증가 추세인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경을 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수는 532명을 기록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의 수준이지만 2000년 이전 탈북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성경을 본 경험자가 1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안현민 연구원은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성경을 접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경은 종교 전파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밀수가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이어 “밀수를 하는 북한 주민의 경우 밀수 품목을 일일이 모두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밀수 이후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발견되고 이를 주민들이 공유하거나 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FA, 2월 15일)



## ✦ 北, 김정일 생일에 "경제도 세계선진국 앞서나가야" 독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7회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학생, 주민 등이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북한 관영매체들이 주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16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국가가 하루빨리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 선진국가들을 앞서나가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이매체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과 보건, 체육과 문학 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를 혁명적으로 추켜세워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도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 기념 사설에서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나가라,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혁명의 부름"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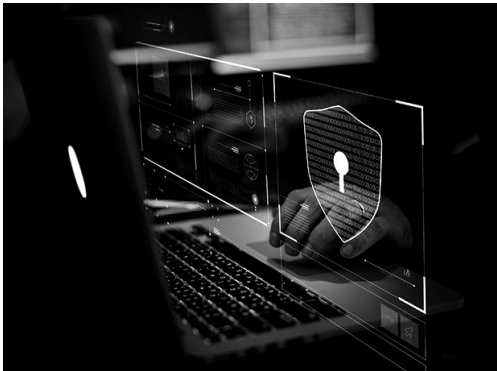
신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창조전, 탐구전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고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각 경제 부문이 단순한 자력갱생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수준'에 눈높이를 맞출 것을 독려했다.

최근에는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핵심 슬로건으로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기도 했다. 개인을 결집하는 핵심 준거로 '국가'를 내세우고 애국심을 경제건설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각지의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를 전한 17일자 기사에서도 첫머리에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라며 국가제일주의를 부각했다.

## + “북 연관 해킹조직 ‘라자루스’ 올해도 사이버공격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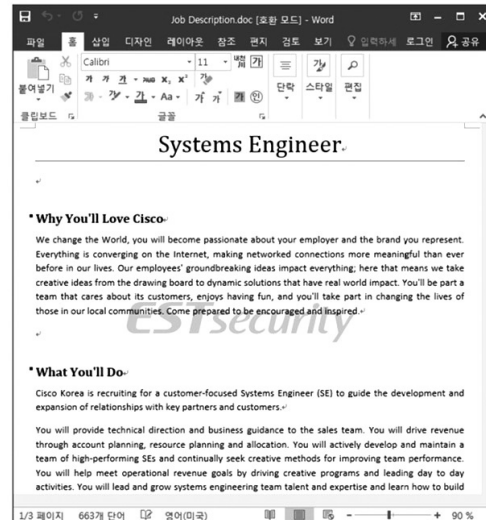


〈일명 라자루스(Lazarus)가 수행한 최신 지능형지속위협(APT) 사이버 공격이 올해 처음 포착됐다.〉

한국의 민간 컴퓨터 보안업체인 이스트시큐리티(ESTSecurity)는 정부 차원의 후원을 받는 공격자(State-sponsored Actor)인 일명 라자루스(Lazarus)가 수행한 최신 지능형지속위협(APT) 사이버 공격이 올해 처음 포착됐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악성코드’가 삽입된 ‘워드 문서 파일’이 한국의 네트워크 카메라(IP Camera) 및 폐쇄회로 카메라(CCTV) 등을 판매하는 특정 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됐다.

30일 새로 발견된 이 악성코드가 담긴 워드문서 파일의 이름은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doc)로, 본문에는 미국 인터넷 네트워킹 회사로 유명한 기업인 씨스코(CISCO) 한국 지사의 ‘시스템 엔지니어’(Systems Engineer) 분야 모집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로 하여금 별 의심없이 워드문서 파일 내용을 보도록 현혹해 악성코드로 컴퓨터를 감염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명 라자루스로 알려진 정부 지원 APT 공격 조직은 작년 9월 6일 미국



〈미국 인터넷 네트워킹 회사로 유명한 기업인 씨스코(CISCO) 한국 지사의 ‘시스템 엔지니어’(Systems Engineer) 분야 모집내용이 담긴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doc) 워드문서파일에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다. 사진출처: 이스트시큐리티(ESTSecurity)〉

법무부에서 일부 해커를 기소하면서 한동안 활동이 소강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해킹 조직이 올해 1월30일 또다시 미국 씨스코 한국지사를 사칭해 사이버 공격에 나섰다라는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관련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는 2016년 5월 전 세계 150여개국 30여만대의 컴퓨터를 강타한 ‘워너 크라이’ 랜섬웨어공격의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해커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한북한해커박진혁이 소속된 조직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월 29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에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 한국 통일부는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올해 들어 한국 정부를 사칭한 해킹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RFA, 1월 30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녘교회 이야기**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저자: 유관지**  
**출간일: 2019년 1월 30일**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  
**가격: 12,000원**

북한은 1952년에 ‘군면리 대폐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을 크게 개편했다. 북한은 이 때 행정구역의 기본체계를 뒤바꿨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행정구역을 손질해서 현재의 북한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가 되어 있다. 시는 24개, 군은 145개, 면은 없어졌고, 주민 생활의 기본단위인 리는 3,230개(읍 145개, 동 1,135개 별도)이다. ‘지구’나 ‘로동자구’ 같은 낯선 이름도 쓰이고 있다. 이제 북한의

어느 곳을 찾아가려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단 당시의 주소를 가지고는 크게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한국사회는 북한의 개편된 행정구역에 대해 의외로 무관심하다. 원산을 함경남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원산은 오래 전에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둔감하다. 분단

전에 북한에 있었던 교회의 소재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는 1938년도 주소록이나 1940년도 연감을, 감리교는 1938년도 재산목록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조직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를 들라고 하면 소래교회가 꼽힌다. 통일이 되면 이 교회를 먼저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소래교회의 주소는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소를 가지고는 한참 헤매다가 그냥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소래교회의 주소는 '황해남도 룡연군 구미리'로 바뀌었으니 말이다.

통일선교의 현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저자는 이것은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깨닫고 오래 전부터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을 살피는 작업을 해 왔다. 분단 70년의 해인 2015년에는 본 「북한개발소식」에 “분단70년 특집 신(新) 북녘순례”를 한 해 동안 연재했고, 2년 전인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구성을 달리해서 「기독교사상」 연재하면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그 원고들을 정리하고 보충해서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재구성한 북녘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이 책은 '평양직할시-남포특별시-라선특별시-평양북도-평안남도-황해북도-황해남도-량강도-자강도-함경북도-함경남도-강원도' 순으로 북한을 일순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분단 이후의 일들,

최근의 일들도 힘써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양의 경우 2006년 8월 13일에 거행된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의 준공식에 북한의 내각 부총리와 외무성 부상, 주북 러시아 대사와 외교대표들이 참석했고, 정백사원이 2014년에 내부도색작업을 할 때 러시아에서 특별 도색재를 운반해 오고 러시아 미술가들이 와서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들려주면서, “정백사원은 ‘제2의 주북 러시아 대사관’과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국가교회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정백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 책에는 부록으로 “2002년~2018년 「로동신문」의 종교 관련 기사 목록”이 실려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공간(公刊) 매체에 실린 기사들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대하기 어려운 북한 종교관계 일차자료라는 점에서 이 자료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북한교회와 북한 종교 정책의 존재가 입체적으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손에 들고 북한 전역을 순례하며 책에 기록한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염원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저자께서 직접 책 소개문을 써 주셨습니다.

1.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앞으로 북핵 문제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이 비확산이나 동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폐기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관련된 각국 리더들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회담 이후 이어질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듯 보이는 북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한 억압과 통제에 고통받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나 수령을 의지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배신당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바로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할 뿐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머지 않아 북한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그 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3.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의 문이 매우 좁아져있는 북한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한국 교회,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동안 거짓 신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영혼들의 상처와 핍박의 아픔을 싸매어줄 수 있는,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고단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영육 간에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사역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된 수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인권유린이 하루속히 중단되어 성도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합니다.



5.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3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던 선교사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추방과 통제, 선교를 어렵게 하는 법령과 정책 뿐 아니라 현지 교회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된 현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양육해줄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도 여성 및 일반 분야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상황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피땀흘려 헌신하며 수고해온 사역이 계속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법과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진보를 막는 일이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6.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날씨나 기상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7. 오픈도어선교회에서 개최하는 제 7차 북한 선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헌신자들에게 선교의 기회를 열어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북한선교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스테프들과 강사들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제 7회 **오픈도어 2019**

# 북한 선교 학교

2019년 **4월 1일 - 7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생명나래교회 본당 (사당역 6번출구 앞)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서부터 국내 통일 선교 사역과 북한 선교 현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이번 선교학교에 뜻이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북한 선교에 소명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프로그램

#### 1학기 - 북한에 대한 이해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4월 1일	북한 사회와 문화 변화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부산 하나센터장)
4월 8일	북한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아시아연합신대 북한선교대학원 교수)
4월 15일	북한 경제와 장마당 세대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
4월 22일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 실태	이성희 (미래소망스쿨 교감, 전 북한 국어교사)
4월 29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전 통일부 차관)

#### 2학기 -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5월 13일	탈북 난민과 인권, 그리고 북한 선교	지성호 (NAUH (나우) 대표)
5월 20일	교회에서 준비하는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 목회	하광민 (생명나래교회 담임)
5월 27일	북한 교회 핍박의 현장	박한나 목사
6월 3일	탈북 청소년, 새로운 통일의 세대	김두연 (한꿈학교 교장)
6월 10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선교	박현석 ((재) 나이스 퍼플 대표)

#### 3학기 - 북한 선교의 실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NGO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탈북 여성 사역, 북한선교현장의 실태 등 실제적인 북한 선교 사역을 주제로 관련 전문 사역자 강의

#### ※ 선교학교 이후 국내 민통선 기도여행 및 현장 아웃리치 실시 예정

### 접 수

- 온라인(3월,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및 현장 접수 (강의 1, 2주차)
- 등록비: 학기당 5만원 (사전 등록자 할인)

### 문 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홈페이지 참조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오픈도어선교회' 검색]